



이민자 영어 선납금 사용 안내

교육비 선납 영어(PELT) 프로그램은 수급 자격이 되는 이민자들이 영어 코스에 등록해 순조롭게 뉴질랜드에 정착하고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수급 자격

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뉴질랜드 이민성에 영어 교육비를 선납한 이민자여야만 PELT (Pre-purchased English Language Tuition) 코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가용 선납금

사용할 권리가 있는 선납 영어 교육비를 가용 선납금 (Balance of entitlement)이라 합니다.

개개인의 가용 선납금은 영주권 신청 당시의 영어 수준과 뉴질랜드 이민성에 낸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 NZ\$1,531.82에서 NZ\$6,131.82 사이입니다.

부모 초청 이민 제도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가용 선납금이 NZ\$1,531.82입니다.

본인이나 대리인이 이메일 sectorhelpdesk@tec.govt.nz 또는 전화 0800 601 301로 저희 안내처 (Sector Helpdesk)에 문의하시면 가용 선납금이 얼마인지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이름과 생년월일, 여권번호를 밝혀야 합니다.

교육비 선납 영어 코스에 등록

PELT 3차 교육기관 (TEO)은 다양한 학습 필요에 맞는 여러 가지 영어 코스를 운영합니다. 코스 하나에 선납금 전액을 다 써버린다거나, 코스를 마치고 바로 시험에 합격할 필요는 없습니다.

코스비가 가용 선납금을 초과하면 본인이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.

PELT 코스에 등록하려면 간단한 다음 3단계 절차에 따르십시오.

1. 이메일 sectorhelpdesk@tec.govt.nz 또는 전화 0800 601 301 로 저희 안내처에 문의해 가용 선납금이 얼마인지 확인
2. 승인된 지역별 PELT 코스의 목록을 아래에서 확인해 TEO 와 등록 희망 코스를 선택
3. 선택한 TEO 에 연락해 등록. TEO 에 등록할 때 여권과 영주권 비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승인된 지역별 PELT 코스 목록:

[Pre-purchased English Language Tuition \(PELT\) 2018 Auckland Directory of Providers \(PDF, 1.6 Mb\)](#)

[Pre-purchased English Language Tuition \(PELT\) 2018 Christchurch Directory of Providers \(PDF, 836 Kb\)](#)

[Pre-purchased English Language Tuition \(PELT\) 2018 Wellington Directory of Providers \(PDF, 763 Kb\)](#)

[Pre-purchased English Language Tuition \(PELT\) 2018 Other regions Directory of Providers \(PDF, 1.3 Mb\)](#)

자세한 정보:

다음 테스트는 영어 능력 측정 도구로 쓰이는 시험입니다. 링크를 누르면 뉴질랜드 정부 웹사이트가 아닌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. 저희 웹사이트에 이 링크를 걸어두었다고 해서 이러한 시험과 그 주관 기관 및 웹사이트를 승인, 보증,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.

IELTS (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)

[IELTS 웹사이트](#)

TOEFL 인터넷 방식 시험 (iBT)

[TOEFL iBT 웹사이트](#)

OET (Occupational English Test)

[OET 웹사이트](#)

캠브리지 영어: First (FCE) 및 FCE for Schools

[캠브리지 영어: First \(FCE\) 웹사이트](#)

[캠브리지 영어: First \(FCE\) for Schools 웹사이트](#)

피어슨 영어 시험: Academic (PTE: Academic)

[PTE Academic 웹사이트](#)

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sectorhelpdesk@tec.govt.nz 또는 전화 0800 601 301로 저희 안내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We ensure New Zealand's future success.